



# 해양수산부, 창설 10주년 계기로 새로운 도약 다짐

##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 선진해운국 반열에 진입



어 내는 커다란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해양부 출범 열 돌을 자축함과 동시에 지난 10년이 해양수산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 부국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다면, 향후 10년은 국민들에게 바다 개척을

해양수산부는 8월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창설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등 산하 단체장들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양부 창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성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0년전 오늘,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일류해양국가를 향하여 해양수산부가 그 동안 신생부처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과 과감한 정책혁신을 통하여 해양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하고, “특히 100년 만에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간 대타협을 이끌

통해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책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경영 전략을 재정비하여 성과중심의 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우리 스스로 해양강국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자신감과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수립 반세기만에 13개 부처와 외청에 분산

되어 있던 해양·수산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탄생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10년간 마련하고 시행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회장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동북아물류중심항만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선박편드 활성화와 톤세제도 시행,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을 통한 해운·물류산업의 육성정책, 수산자원의 회복과 효율적 관리, 항만노무관리의 상용화 전환 등은 해양수산부의 존재이유를 대내외에 과시한 괄목할만한 한 업적”이라며, 해양수산부의 그동안 역할과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해운 항만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창설된 지난 10년 동안 해운서비스업의 수지면은 11억불(97년) 규모에서 총 34억불('05년) 규모로 늘어났고, 총 선박보유량도 1,200만GT(국적선 600만GT, 외국적선(BBC/HP) 600만GT)에서 1,400만GT(국적선 800만GT, 외국적선 600만GT)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601만9000TEU(97년)에서 1,520만TEU(2005년)로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시설 확보율(%)도 44.5%(1997년)에서 68.9%(2005년)로 늘어났으며, 오는 2011년까지 컨테이너 시설 확보율은 109.1%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상물동량의 경우 수출입 화물의 경우는 4억 8,500만톤(1997년)에서 7억7410만톤(2005년)으로 증가했으나, 연안화물의 경우는 1억4,700만톤(1997년)에서 1억2,060만톤(2005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무사고 승선선원 5명 '올해의 선원' 선발포상

해양수산부는 8월8일 부출범 10주년을 맞아 장기 무사고 승선 선원 5명을 '올해의 선원'으로 선발해 포상했다.

올해는 노·사간 협의를 거쳐 외항선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 어선 및 해외취업선 등 5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했다.

외항선 부문에서는 27년간의 승선기간동안 사망감과 인명존중의 동료애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작업방법을 개선해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한 한진해운 한진러던호 갑판장 장주식씨(53)가 선정됐다.

원양어선 부문은 36년간 장기 승선기간동안 유용한 어획정보를 확보해 어획량을 높이고 선단선박별 긴급연락시스템 도입으로 인명보호와 안전조업에 기여한 부영코포레이션(주) 부영68호 통신장 최상기씨(65세)가 선정됐다.

또 내항선 부문에서는 21년간 승선기간동안 내항선 최초 ISM CODE 인증 획득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선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원의 자질향상 및 안전운항에 기여한 쌍용해운 청양호 선장 박영화씨(52세)가 선정됐다.

연근해어선 부문에서는 26년 동안 어선에만 승선하면서 신규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오염 방지 등 습득한 지식을 후배 선원들에게 전수하는 등 후진양성에 기여한 2002태광호 갑판장 김재용씨(61)가 차지했다.

해외취업선 부문에서는 35년간 국제외항선선 및 해외취업선선박에 장기 승선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한국해기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나라 해운발전에 기여한 (주)아이엠 에스코리아 JUNO ISLAND호 기관장 최성남씨(59세)가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로 네 번째인 '올해의 선원' 선발은 선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선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